

부자되는 첫걸음, 지출 관리

모든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던, 펀드에 투자를 하던, 은행에 저축을 하던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들고 그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돈을 모은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text{미래가치(목표금액)} = \text{투자원금} \times (1 + \text{수익율})^{\text{투자기간}}$$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목표금액을 저축,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고 싶을 때 투자 원금이 얼마인지, 투자한 금융상품이나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투자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영향을 받게 된다.

❖ 세가지 변수는 모두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할 때, 수익률이 5%인지 10%인지 20%인지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율	5%	10%	20%	1억을 10년 투자할 때
투자결과	1억 6,289만 원	2억 5,937만 원	6억 1,917만 원	

같은 돈 1억을 수익률 10%로 했을 때 투자기간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 보자.

기 간	5년	10년	20년	1억을 10%수익율로 투자할 때
투자결과	1억 6,105만 원	2억 5,937만 원	6억 7,275만 원	

같은 돈이지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느냐에 따라 투자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투자수익이 낮다면 오랫동안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고, 투자기간이 짧다면 수익을 높이면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돈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물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지나친 고수익추구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 버린다.

적정 투자수익과 적정 투자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자원금의 마련이다. 투자자금이 마련되지 않고 수입이 다 사용되어 버리면 아무리 수익이 높은 상품이고 투자기간을 길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원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

에게는 투자원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해야 투자원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답은 생각보다 상식적이다. 바로 나가는 돈의 컨트롤, 지출 통제이다.

❖ 기업이나 가게나 지출통제가 중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지출통제, 비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가게도 지출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산증식도 불가능하고, 필요한 자금 준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출통제 및 관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

수입은 늘어가는 비율보다 더 급격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특히 교육비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계속 문제가 되어온 주택 자금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은 잇따른 금리 상승으로 가게를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강해져 가고, 수많은 광고들은 지름신의 강림을 부른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한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부담없이 멋지게 그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 급여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난 잔고를 확인하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샐러리맨들의 모습



일 것이다.

정말 큰 문제는 돈이 어디서 새고 있고,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 전자가계부, 지출통제에서 현금흐름관리·자산관리로

지출통제, 관리를 위한 가장 전통적인 수단은 가계부였다. 매일 매일의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가계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출통제가 현금지출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로는 힘든 시기가 되었다.

수많은 자동이체, 카드명세서와 처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잔고에 대한 정확한 조회와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다양한 금융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필자가 사용하기 시작한 전자가계부는 전통적인 지출통제라는 가계부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통합적인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매번 은행마다 인증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는 수고 없이도 각 은행의 계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나의 전체 잔고가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고 각 카드명세서를 통합해서 현금지출과 카드지출을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기적인 현금흐름 관리가 가능하고 예산 수립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초기 전자가계부는 단순히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가계부의 일반적인 기능을 옮겨 놓은 것 게다가 계산이 가능한 엑셀기능을 첨가한 정도의 형태였다. 물론 이런 형태의 가계부도 지출통제에 있어서는 유용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지출통제 뿐만 아니라 기간에 따른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투자자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툴이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복식부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역할하기에도 별로 부족함이 없다. 회사 전체의 계좌관리와 법인카드 사용관리를 포함해서 각종 비용지출과 자산관리가 가능할 만큼 진화했기 때문이다.

❖ 재미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출통제

매일 매일 지출하는 돈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통계를 내어 보고 수입에 비추어 진단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머리가 아프다. 재미도 없다. 항목을 결정하는 일도 단순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머리가 아픈 과정이 없이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출발점인 투자원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삶을 계획하고 그 설계에 맞추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삶을 풍요롭게 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 출발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통제 하에 둬으로써 투자가용자산을 파악하고,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

생각은 있지만 쉽게 하기 힘든 지출관리! 전자가계부 사용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